

주요개념 : 성역할인지, 성교육요구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의 성역할인지와 성교육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김 영 혜* **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 규범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은 물론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이광자, 1996). 최근 우리는 연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이 있는 집집마다 개인용 컴퓨터를 소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천문학적인 숫자이며 특히 성을 상품화한 인터넷이나 각종 영상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 성에 관한 정보는 내용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성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섰으며 성의 폭력화 및 상품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동안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야 할 성문화나 성의식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으로 형성되어 갈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행동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에는 성폭행에 의한 여중생의 교실내 출산이 몇 케이스나 있었으며 지난 5년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중 미혼모 자녀가 83.8%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폭력피해자의 80.8%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들과고 성범죄 발생비율이 세계 3위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부산성폭력 상담소, 1996; 조선일보, 96. 12)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아직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결여이고 둘째, 현재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지 않고 특히 성에 관하여 남녀이중구조(double standard)가 사회구조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대중매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끝으로 우리 문화에 맞는 성교육에 대한 교과과정안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97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해 조성된 논문임

예컨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성에 관한 실상을 외면하고 있으며 남녀성별로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의식이 서로 달라 남학생들의 경우 TV나 비디오 등을 즐기면서 여성은 폭압이나 완력의 대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성의 세계는 환상적이며 낭만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돈에 의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성의 표상들이 현실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으며 또한 기성세대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만큼은 성에 관하여 전통적 관념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성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선부른 성교육은 성충동을 자극할 뿐이라고 잘 못 알고 있다(주간조선, 1998. 8). 한편 학교에서는 성교육에 관하여 누가 말아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잘못된 성지식이나 성의식을 스스로에게 심어가고 있는 것이다(성폭력상담소, 1997).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성문화 발달속도 혹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알맞게 약간 앞서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때가 1965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당시 일부 계층에서는 성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를 금기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990년에는 성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회가 열리는 등 발달단계별 성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성폭력 피해상담소, 1996). 예컨대, 초등학교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중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성'을,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와 성'을 주개념으로 하여 교과과정(北尺杏子-기타자와 교교, 1997)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교육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요구가 다르며 특히 성교육의 교과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대하여 학교-학부모간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그 필요성만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일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이라 할지라도 성교육지도자의 자질부족, 독립된 성교과목의 부재, 성교육 체계의 미확립 및 학습자료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진하며 더욱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실정에 있다.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관심분야에서 거론은 되고 있으나 학술적인 절차와 검정을 거친 연구결과나 시청각 교재는 드물며 특히 간호학계에서 접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용 성교육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가르친다면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권에 적합한 발달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여 성을 상품화하고 폭력화하여 각종 청소년·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상업주의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남녀성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또한 구체적인 성교육내용에 관한 교육적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남녀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조사한다.
-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다.

- 3)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의 성별 성역할 인지도 및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청소년의 자위행위 빈도와 학부모가 자녀의 자위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5) 학교 성교육적임자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다.

3. 용어의 정의

- 성역할 인지도 : 우리 문화가 기대하고 있는 남녀 성별 특성에 대하여 알고 그 뜻을 총체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직무, 태도 및 능력면에서 남성우위의 성차별주의를 의식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우위적 성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성교육 요구도 : 학교성교육 교과내용의 개념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II. 문헌고찰

전통적 입장에서 성역할의 개념화는 주로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는 데서 비롯되어 있으므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행동으로부터의 이탈은 부적응을 초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수용성, 감수성, 비폭력, 부드러움, 순종, 정절, 인고, 부덕성"을 내포하는 이상형의 여성적 성역할만을, 남성에게는 "지배와 성취, 공격성, 착취"를 수용해주는 남성적 성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권이중, 1996).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문화, 규범 및 인간성의 본질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의 해방, 여성해방운동, 가족구조 및 크기의 변화 등은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온 전통적 성역할의 규범을 약화시켰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역할변화를 초래하여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조원정, 김진순외, 1996; 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 1997; 한국교육개발원, 1997).

성역할의 가장 높은 단계는 양성적 단계인데, 이는 사람들이 기능성과 친교성을 융화시키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융화시키는 것을 배워야만 성역할발달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즉 양성성이라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융통성있게 수행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고 그로인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신개념과 구개념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성역할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제의 발생율은 잘못 형성된 성역할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이중, 1996). 놀랍게

도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무지, 오해 등은 청소년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생식기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남아들은 여성의 요도, 클리토리스 및 처녀막의 위치를 모르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성폭력피해상담소, 1996).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심리적이며 도덕적인 중요성을 가진 일생동안의 과정이며 사춘기 동안에는 성적 감정에 대처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것이 긴박한 과제가 해당한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성행위가 시작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들간에 성행위의 빈도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10대의 임신율이 늘어난 것을 보면 더욱 알 수 있는 일이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메스컴과 문화·산업 등이 젊은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Shen, 1982; Roberts, 1984).

사춘기 성문제의 대처방안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자녀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대화의 시간은 아동이 사춘기가 될 때까지 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법이다(이재연과 김경희, 1989). 자녀교육이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분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곽덕영과 김미화, 1994).

Alvarez(1990)에 의하면 사춘기 소녀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패턴에 따라 월경주기, 성 및 피임에 대한 정보량이 달랐으며 따라서 사춘기 소녀의 부모들은 10대들에 대한 성적 사회화의 중재자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사춘기 성행위의 결과는 그들은 물론이고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임있는 성적행위들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어떤 준비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그들이 인지적으로 성숙하여 그러한 행위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신체적 성숙에 도달한다. 특히 10대의 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원은 거의 동료들이며 가족들은 그들이 책임있는 성적 행위들을 수행해 내는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성교육과 토론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주간조선, 1988. 8). "사춘기의 성을 이해하는 일연구"(Hajcak과 Garwood, 1988)는 치료사,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춘기 성충동의 압도적인 강도는 리비도나 생리현상보다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성역할발달 이론가 Mischel(권이중, 1996)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더 획득하는 경향이 있고 강화가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적절한 성별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Piaget와 Kohlberg(권이중, 1996)와 같은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아동이 자신의 성적체감에 대한 자아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성행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개인의 지각을 안내하고 조직해주는 기대 단위 혹은 연합의 틀인 쉐마(chemas) 즉 인지구조를 발달단계에 알맞게 점진적으로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참고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의 성교육방향은 '사회학습이론에 의한 성적체감 동일시'와 '인지발달이론에 의한 성역할수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한 개인이 자기 성별 특질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성의 특질도 아울러 지닐 수 있도록 특히 학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관심 분야에서 거론은 되고 있으

나 학술적인 절차와 검정을 거친 연구결과나 시청각 교재는 드물며 특히 간호학계에서 접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용 성교육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가르친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III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P시에 소재한 5개 중학교 3학년중에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남녀학생 377명과 학부모 2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중 3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부산성폭력상담소, 1996)가 1-2학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2. 연구 도구

- 1) 성역할 인지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한명희(1983)과 이순형(1983)의 "성차별주의 의식도구"를 사용하여 1점-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 인지도는 직무, 태도 및 능력의 세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차별주의 의식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성교육 요구도는 일본 도쿄의 성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9개 주제념으로 형성된 성교육 교과과정안(기타자와 교코(北尺杏子), 1997)을 원용한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1점-4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개별내용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검정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는데 성역할 인지도는 청소년군에서 .9396, 학부모군에서 .9022 였으며 성교육 요구도는 청소년군에서 .9387, 학부모군에서 .9113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을 표집할 때 한국의 청소년을 대표할수 있는 표적집단이 되도록 우선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시내 학교, 단독주택 지역 학교, 고지대, 상업지역 및 영세민 임대주택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10-12개 학급중에서 무작위로 4학급씩 선정하여 학교행정가의 동의를 구한 뒤에 연구자 혹은 양호교사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시기는 1998년 5월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뒤, 학교 당국은 물론 학생들의 부담이 적을 때를 택하였다. 단 학부모용 설문지는 청소년용 설문지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용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제외시키되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린 후 두 분중 한 분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날 양호교사에

의해 회수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살펴보면 학부모용 설문지는 400명중 251부로서 63%였으며 학생의 설문지는 377부로서 94%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인구사회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연구대상의 성별, 집단별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분포에서 학부모의 경우, 모친이 183명(72.9%)으로서 부친 68명(27.1%)보다 많았으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91명(50.7%)로서 여학생 186명(49.3%)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분포에서 학부모의 경우, 40~44세군이 54.2%로 가장 많아 평균 42.23세였으며 청소년군은 15세가 50.9%로서 가장 많아 평균 14.55세였다. 가족수는 양군 모두에서 4명이 61.8%와 5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평균 4.29명-4.2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0.4%와 89.1%로 대가족보다 많았다. 종교분포에서는 양군 모두 불교신자가 56.6%와 38.7%로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에서도 아파트거주가 44.2%와 47.7%로 단독주택 거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월수입에서는 양군 모두 '100-149만원'이 29.9%와 32.1%로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N=628

내 용	구분	청소년(n=377) 실수(%)	학부모(n=251) 실수(%)
성 별	남	191(50.7)	68(27.1)
	여	186(49.3)	183(72.9)
연 령(세)		14.55±.89	42.23±.47
가 족 수		4.24±.81	4.29±1.01
가 족 형 태	핵 가족	336(89.1)	227(90.4)
	대 가족	41(10.9)	24(9.6)
	없 음	113(30.0)	49(19.5)
종 교	불 교	146(38.7)	142(56.6)
	기 독 교	85(22.5)	37(14.7)
	천 주 교	24(6.4)	20(8.0)
	기 타	9(2.4)	3(1.2)
	아 파 트	180(47.8)	111(44.2)
주 거 형 태	단 독 주 택	118(31.3)	98(39.1)
	연 립 주 택	57(15.1)	34(13.5)
	기 타	22(5.8)	8(3.2)

내 용	구분	청소년(n=377) 실수(%)	학부모(n=251) 실수(%)
가구 월 수입 (만원)	100 미만	64(17.0)	13(5.2)
	100-149	121(32.0)	75(29.9)
	150-199	81(21.5)	68(27.1)
	200-249	58(15.4)	53(21.1)
	250-299	27(7.2)	24(9.7)
	300-349	11(2.9)	9(3.6)
	350 이상	15(4.0)	9(3.6)

2.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지도 및 성교육 요구도

1) 청소년의 성별 성역할 인지도 차이

청소년의 남녀성별에 따른 성역할인지도와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차이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직무면의 성역할 인지도를 묻는 12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남학생이 2.92점으로서 여학생의 1.85점보다 높았다($t=15.293, p=.000$). 모든 개별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자가 더 적합하다",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성은 정적인 일에 더 적합하고 아기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의 일이다"에서 남녀성별로 가장 큰 점수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여성의 능력에 대하여 편견이 많고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도면의 성역할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남학생이 2.91점으로서 여학생 2.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13.148, p=.000$). 모든 개별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남학생은 씩씩한 기상을 발휘해야 한다", "남자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도 좋고, 여자는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겸양지덕을 갖추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더 낫다"에서 남녀성별로 큰 점수차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우위적 성차별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능력면의 성역할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남학생이 2.93점으로서 여학생 1.9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16.417, p=.000$). 또한 모든 개별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남자는 일처리 능력이 여자보다 뛰어나고 그 때문에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남학생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성능력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남성우위적 성차별 의식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 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남녀별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예컨대, 어떤 남학생이 왜곡된 성차별의식을 지닌채 직장생활 및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므로 학교의 성교육시간에 바람직한 성역할인식을 목표로 하여 양성주의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남자아이가 커 감에 따라 보다 양성적인 성역할 정체성을 주입해주고 반대로 소녀에게는

성숙해 가는 동안에 여성적 성역할 오리엔테이션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Adams와 Gullotta, 1983). 그들에 의하면, 양성적 젊은이들 특히 양성적인 소녀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에 보다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데 비하여 남성성이 높은 남자들은 노이로제나 불안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2) 청소년의 학교성교육에 대한 성별 요구도 차이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학교 성교육요구도 차이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영역중 "양성평등"에 대한 점수는 여학생이 3.17점으로서 남학생 2.9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2.574, p = .010$). "사생관"은 남학생이 3.20점으로서 여학생 3.02점보다 높았다($t = 2.421, p = .016$). 특히 소중한 생명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성별차이도 컸다. 한편,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건강한 삶'이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반면에 태아성감별에 대해서는 남녀학생 모두 관심이 적었다. "결혼관"에 대한 요구도가 남학생 3.14점, 여학생 3.17점으로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도에서도 남학생 3.17점, 여학생 3.11점을 보여 비교적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개념은 "사랑"으로서 남학생 3.41점, 여학생 3.52점이었다. "생식교육"에 대한 평균점수는 남학생 3.11점, 여학생 3.25점으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임신, 불임, 생식기술과 같은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출산, 성교, 수정'과 같은 내용에서도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생리교육"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3.02점과 여학생 3.01점으로서 성별로 차이가 없었고 성교육의 9개 주개념중에서 비교적 요구도가 낮았으나 '2차성징, 남녀의 차, 초경, 월경'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치치교육"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2.99, 여학생 3.07로서 성별차이는 없었지만 '월경처리, 낙태와 임신중절'에 대한 개별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요구를 했고 'AIDS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생리교육과 처치교육'에 대해서는 남녀학생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사회와 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남학생 2.80점, 여학생 2.95점으로서 9개 주개념중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성의 상품화, 성희롱, 장애인의 성문제, 부부간의 성, 가족관 및 성과 연령차이'에 대한 요구도는 여학생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 남녀모두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성폭력문제, 담배, 알콜, 마약, 매매춘 및 성희롱항목이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에서는 여학생이, "생사관"에서는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녀성별에 따른 요구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7개 영역에서는 성별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기존의 성교육 교과내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식교육" 부문에 대한 요구도는 낮은 반면에 "사랑, 결혼관, 인권교육, 생사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한국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내용에 대한 재점검 및 보완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사료되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료(1996)에 의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1.5%였으나 학교성교육내용에 대한 개념 범주가 주로 신체발달과 생리적 변화(78.6%)에 국한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남녀성역할 및 이성친구 15.3%, 성병과 성폭력 4.1%, 성욕 및 성충동해소방법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45.8%가 성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된 고

민이 이성친구(35.2%)와 성욕구·성충동(32.4%)이었으나 성교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61.9%정도에서 혼자서 해결하고 있었고 성지식을 얻는 주된 통로는 교과서·학교선생님(27.3%)외에 친구·선배(25.7%), 주간지·잡지(15.9%), 대중매체(15.2%)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청소년의 성상담자료(권이종, 1996)에서도 성지식(20.3%), 성심리와 성욕구(9.2%), 이성관계(7.1%), 성관계(5.5%), 성병, 근친상간 및 성도착(각각 2.3%)에 관한 상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1998)과 한국부모교육학회(1998)는 학교성교육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9.9%였으며 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교육의 주 내용이 생리작용(32.3%), 임신, 출산(15.8%)를 차지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교육 내용으로는 남녀의 성심리 및 성충동(24.6%), 성인식(23.7%), 피임방법·성병(21%) 등이라고 보고했다.

〈표 2-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지도 차이

N=377

내 용	남(n=191)		여(n=18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영역〉-----	2.92	.66	1.85	.69	15.293	.000
“여자는 가정에서 충실한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3.08	1.29	2.14	1.22	7.287	.000
“여자는 선천적으로 정치가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 부적합하다”	2.09	1.21	1.48	.91	5.505	.000
“여아는 남아에게 양보해야 한다”	2.00	1.16	1.29	.79	6.858	.000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자가 더 적합하다”	3.40	1.24	2.58	1.38	6.059	.000
“사회적인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92	1.34	1.67	1.16	9.577	.000
“여자는 현모양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24	1.18	1.89	1.22	10.803	.000
“남자는 사회적인 역할을 여자는 가정적인 역할을 책임져서 분담해야한다”	3.16	1.32	1.83	1.27	9.925	.000
“가사일은 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남편의 권리이며 도량이다”	2.21	1.17	1.41	.95	7.264	.000
“남성은 활동적인 일에, 여성은 정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	3.52	1.24	2.14	1.29	10.479	.000

"직장에서 여성상관보다 남성상관을 모시는 것이 더 좋다"	3.00	1.29	1.73	1.14	10.113	.000
"직장에서 책임있는 일은 남자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2.91	1.30	1.67	1.13	9.772	.000
"아기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의 의무이다"	3.49	1.37	2.36	1.48	7.660	.000
<태도영역>-----	2.91	.56	2.13	.59	13.148	.000
"남자는 슬퍼도 남앞에서 울어서는 안된다"	2.91	1.37	2.27	1.41	4.507	.000
"남자는 여자보다 독립심과 자율성이 강하다"	3.68	1.09	2.76	1.39	7.097	.000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이 더 풍부하다"	3.72	1.18	3.65	1.36	.509	.611
"여자는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	3.09	1.11	2.38	1.25	5.824	.000
"여자는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생의 보람을 찾는다"	2.49	1.23	1.65	1.13	6.884	.000
"여자는 남자보다 사교성이 강하다"	3.39	1.05	3.13	1.43	1.957	.051
"여자는 유전의 영향을, 남자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3.06	1.07	2.33	1.15	6.309	.000
"여성은 남성보다 성취하려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2.97	.95	2.39	1.20	5.142	.000
"남학생은 씩씩한 기상을 발휘해야 하고 여학생은 얌전해야 한다"	3.21	1.44	1.59	1.08	12.343	.000
"집안에서 남자는 큰소리를 내어도 좋으나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2.16	1.19	1.24	.75	8.922	.000
"여자는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겸양지덕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2.94	1.31	1.73	1.10	9.627	.000
"모든 장소에서 남성에게 양보하는 것은 여성의 미덕이다"	2.28	1.20	1.44	.91	7.609	.000
"여성교육의 제일 목표는 현모양처이어야 한다"	2.80	1.28	1.63	1.16	9.159	.000
"남여공학보다 각 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남녀분리교육을 해야한다"	1.98	1.30	1.55	1.09	3.434	.001

〈능력영역〉-----	2.93	.57	1.96	.58	16.417	.000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3.92	1.07	3.04	1.41	6.735	.000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능력면에서 앞서야 한다”						
	3.14	1.24	2.42	1.42	5.167	.000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면에서 좀 못해도 상관이 없다”						
	3.01	1.25	1.82	1.10	9.740	.000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2.66	1.35	1.40	.90	10.662	.000
“남자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월등하다”						
	2.90	1.24	1.62	1.01	10.836	.000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 더 적합하다”						
	2.81	1.29	1.74	1.16	8.377	.000
“학교 회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부회장은 여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						
	2.57	1.33	1.43	.92	9.643	.000
“남자와 여자는 능력상 평등하지 않다”						
	2.73	1.33	2.07	1.43	4.603	.000
“역사상 남자 위인이 더 많은 것은 남자의 우위성 때문이다”						
	3.15	1.40	2.51	1.49	4.257	.000
“남자는 여자보다 분석적 사고능력이 더 높다”						
	3.02	1.11	2.12	1.24	7.354	.000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감이 더 낮다”						
	2.99	1.20	1.93	1.23	8.445	.000
“여성은 암기나 단순한 반복적 일을 더 잘하고 남성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일을 더 잘 한다”						
	2.87	1.15	2.13	1.28	5.920	.000
“남학생과 여학생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목도 달라야 한다”						
	2.34	1.39	1.51	1.03	6.519	.000
“일처리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						
	2.82	1.19	1.61	1.00	10.675	.000

〈표 2-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요구도

N=377

내 용	남(n=191)		여(n=18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평등〉	2.93	.84	3.17	.92	-2.574	.010
〈인권교육〉	3.17	1.84	3.11	1.89	1.670	.503
〈결혼관〉	3.14	.86	3.17	1.00	-.318	11.751
(사회와 성)-소계 평균	2.80	.65	2.95	.68	-2.146	.033
성폭력문제	3.29	.95	3.42	.81	-1.493	.136
성의 상품화	2.80	1.03	3.01	1.02	-1.970	.050
포르노의 허구성	2.51	1.11	2.53	1.07	-.216	.829
담배, 알콜, 마약	3.10	1.16	3.06	.99	.408	.683
매매춘	3.05	.98	2.94	1.03	1.123	.262
성희롱	3.05	.97	3.33	.89	-2.850	.005
동성애	2.75	1.09	2.92	1.07	-1.526	.128
장애인의 성	2.52	1.11	2.80	1.05	-2.434	.015
우생학과 성	2.45	1.04	2.63	1.04	-1.711	.078
부부의 성, 가족관	2.80	1.12	3.05	1.00	-2.348	.019
성과 연령차이	2.47	1.07	2.73	1.07	-2.301	.022
〈사랑〉	3.41	.85	3.52	.74	-1.239	.217
〈생사관〉-소계 평균	3.20	.69	3.02	.70	2.421	.016
어떻게 살것인가	3.29	.88	3.28	.91	.089	.929
소중한 생명	3.61	.73	3.45	.85	1.973	.049
성감별	2.70	1.02	2.85	1.03	-1.390	.165
건강한 삶	3.45	.87	3.40	.89	.519	.604
〈생식교육〉-소계 평균	3.11	.70	3.25	.73	-1.761	.079
임신	3.20	.87	3.41	.82	-2.339	.020
성교	3.13	.92	3.24	.86	-1.206	.229
불임과 생식기술	2.87	.92	3.11	.92	-2.463	.014
수정	3.13	.90	3.09	.91	.423	.672
출산	3.24	.87	3.38	.87	.448	.105
〈생리교육〉-소계 평균	3.02	.76	3.01	.80	.158	.874
2차성징 남녀의 차	3.15	.91	3.04	.97	1.126	.261
초경과 사춘기	3.17	.88	3.17	.89	.008	.994
폐경	2.86	.95	2.98	.94	-1.178	.239

몽정	2.95	.93	2.87	.97	.781	.435
사정	2.98	.92	2.88	.96	1.061	.289
월경	3.03	.94	3.12	.94	-1.001	.317
(처치교육)-소계 평균	2.99	.68	3.07	.74	-1.020	.309
피임방법	2.98	1.01	3.07	1.02	-.867	.387
월경처리	2.91	.94	3.15	.89	-2.542	.011
콘돔사용법	2.72	1.10	2.77	1.09	-.408	.684
자위행위	2.70	1.12	2.83	1.15	-1.121	.263
몸의결절	3.38	.82	3.24	.92	1.504	.134
AIDS예방과 치료	3.37	.87	3.18	.95	2.009	.045
낙태와 임신중절	2.88	1.06	3.23	.95	-3.263	.001

3.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의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 차이

1)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의 성역할 인지도 차이

청소년과 학부모간의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직무면의 성역할인지를 묻는 12개 문항에 대한 총평균은 학부모가 2.93점으로서 청소년의 2.39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8.206, p = .000$). 특히 "여자는 가정에서 충실한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t = -8.523, p = .000$), "사회적인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t = -8.523, p = .000$),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t = -8.654, p = .000$), "남자는 사회적인 역할을 여자는 가정적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t = -4.594, p = .000$), "가사일은 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남편의 권리이다"($t = -6.840, p = .000$), "남성은 활동적인 일에 여성은 정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t = -2.899, p = .004$), "직장에서 여성상관보다 남성상관을 모시는 것이 더 좋다"($t = -6.810, p = .000$), "직장에서 책임있는 일은 남자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t = -4.933, p = .000$), "아기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의 의무이다"($t = -7.827, p = .000$)와 같은 문항에서 학부모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남성우위적 성역할인식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도면의 성역할 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학부모가 2.77점으로서 청소년의 2.52점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 = -4.518, p = .000$). 특히 "남자는 슬피도 남앞에서 울어서는 안된다"($t = -2.789, p = .005$), "여자는 유전적 영향을, 남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t = -2.077, p = .038$), "남학생은 싹싹한 기상을 발휘해야하고 여학생은 양전해야 한다"($t = -3.955, p = .000$), "남자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도 좋으나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t = -4.638, p = .000$), "모든 장소에서 남성에게 양보하는 것은 여성의 미덕이다"($t = -2.268, p = .024$), "여성교육의 제일목표는 현모양처이어야 한다"($t = -5.877, p = .000$), "남녀공학보다 남녀분리 교육을 해야한다"($t = -4.811, p = .000$)와 같은 문항에서 학부모의 점수

가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학부모의 성역할인식이 청소년들에 비해 남성우위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능력영역의 성역할 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학부모가 2.79점으로서 청소년의 2.45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5.840, p=.000$).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는 능력면에서 어머니보다 앞서야 한다'($t=-8.560, p=.000$), '사람들이 딸보다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t=-4.336, p=.000$),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 더 적합하다'($t=-4.896, p=.000$), '남자와 여자는 능력상 평등하지 않다'($t=-3.896, p=.000$), '남자 위인이 많은 것은 남자의 우위성 때문이다'($t=-3.270, p=.001$), '남자는 분석적 사고능력이 더 높다'($t=-2.081, p=.038$),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감이 더 낮다'($t=-2.330, p=.020$), '남자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일을 더 잘한다'($t=-4.221, p=.000$), '일처리에 있어서 남자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t=-4.469, p=.000$)와 같은 문항에서 학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학부모의 여성 능력에 대한 성역할 인식이 청소년에 비해 남성 우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남성 우위의 성차별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었으며 그 결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히 부모에 의해 가정내에서 성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남성우위적 성역할을 자녀에게 인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 학교성교육에 대한 집단간의 요구도 차이

연구대상 청소년과 학부모간의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영역중 '인권교육', '결혼관', '사회와 성'의 '성폭력문제, 성의 상품화, 포르노의 허구성, 담배,알콜, 마약, 매매춘, 성희롱, 동성애, 장애인의 성, 우생학과 성, 부부의 성, 가족관'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생사관'의 '어떻게 살 것인가, 소중한 삶, 성감별, 건강한 삶' 등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임신($t=-4.828, p=.000$) 성교 ($t=-2.418, p=.000$), 출산($t=-1.952, p=.050$)'과 같은 생식교육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초경과 사춘기, 몽정, 월경과 같은 '생리교육'영역에서도 차이가 컸고 '피임방법, 월경처리, 몸의 청결, AIDS예방과 치료, 낙태와 임신 중절'과 같은 '처치교육' 항목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여 학부모가 청소년보다 성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1>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 성역할 인지도 차이

N=628

내 용	청소년(n=377)		학부모(n=251)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영역> -소계 평균	2.39	.86	2.93	.71	-8.206	.000
'여자는 가정에서 충실한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2.62	1.34	3.55	1.35	-8.523	.000

"여자는 선천적으로 정치가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 부적합하다"	1.79	1.11	1.88	1.16	-.902	.368
"여아는 남아에게 양보해야 한다"	1.65	1.05	1.73	1.09	-.877	.381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자가 더 적합하다"	2.99	1.37	2.95	1.47	.357	.721
"사회적인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30	1.39	2.94	1.41	-5.618	.000
"여자는 현모양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57	1.38	3.54	1.35	-8.654	.000
"남자는 사회적인 역할을 여자는 가정적인 역할을 책임져서 분담해야 한다"	2.50	1.45	3.04	1.40	-4.594	.000
"가사일은 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남편의 권리이며 도량이다"	1.82	1.14	2.52	1.42	-6.840	.000
"남성은 활동적인 일에, 여성은 정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	2.84	1.44	3.17	1.32	-2.899	.004
"직장에서 여성상관보다 남성상관을 모시는 것이 더 좋다"	2.37	1.37	3.12	1.30	-6.810	.000
"직장에서 책임있는 일은 남자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2.30	1.37	2.87	1.42	-4.933	.000
"아기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의 의무이다"	2.93	1.53	3.85	1.30	-7.827	.000
〈태도영역〉-소계 평균	2.52	.69	2.77	.62	-4.518	.000
"남자는 슬퍼도 남앞에서 울어서는 안된다"	2.60	1.42	2.93	1.54	-2.789	.005
"남자는 여자보다 독립심과 자율성이 강하다"	3.23	1.32	3.28	1.39	-.521	.602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이 더 풍부하다"	3.68	1.27	3.81	1.16	-1.243	.214
"여자는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	2.74	1.23	2.64	1.29	.936	.349
"여자는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생의 보람을 찾는다"	2.07	1.25	2.26	1.24	-1.874	.061

"여자는 남자보다 사교성이 강하다"	3.27	1.25	3.33	1.25	-.574	.566
"여자는 유전의 영향을, 남자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2.70	1.17	2.90	1.25	-2.077	.038
"여성은 남성보다 성취하려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2.68	1.12	2.85	1.22	-1.675	.094
"남학생은 씩씩한 기상을 발휘해야 하고 여학생은 얌전해야 한다"	2.41	1.51	2.88	1.41	-3.955	.000
"침안에서 남자는 큰소리를 내어도 좋으나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1.71	1.10	2.16	1.29	-4.638	.000
"여자는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경양지덕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2.35	1.35	2.44	1.29	-.875	.382
"모든 장소에서 남성에게 양보하는 것은 여성의 미덕이다"	1.87	1.15	2.09	1.24	-2.268	.024
"여성교육의 제일 목표는 현모양처이어야 한다"	2.22	1.35	2.90	1.49	-5.877	.000
"남여공학보다 각 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남녀분리교육을 해야한다"	1.77	1.21	2.26	1.31	-4.811	.000
<능력영역>-소계 평균	2.45	.74	2.79	.66	-5.840	.000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3.49	1.32	3.47	1.29	.193	.847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능력면에서 앞서야 한다"	2.79	1.38	3.76	1.41	-8.560	.000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면에서 좀 못해도 상관없다"	2.43	1.32	2.55	1.30	-1.083	.279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2.04	1.31	2.52	1.40	-4.336	.000
"남자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월등하다"	2.27	1.30	2.35	1.32	-.725	.469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 더 적합하다"	2.29	1.34	2.83	1.40	-4.896	.000
"학교 회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부회장은 여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	2.01	1.28	2.21	1.34	-1.944	.052

"남자와 여자는 능력상 평등하지 않다"	2.40	1.42	2.85	1.37	-3.896	.000
"역사상 남자 위인이 더 많은 것은 남자의 우위성 때문이다"	2.83	1.48	3.22	1.36	-3.270	.001
"남자는 여자보다 분석적 사고능력이 더 높다"	2.57	1.26	2.79	1.26	-2.081	.038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감이 더 낮다"	2.47	1.32	2.72	1.30	-2.330	.020
"여성은 암기나 단순한 반복적 일을 더 잘하고 남성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일을 더 잘 한다"	2.51	1.27	2.94	1.22	-4.221	.000
"남학생과 여학생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목도 달라야 한다"	1.93	1.29	2.13	1.26	-1.908	.057
"일처리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	2.23	1.26	2.69	1.30	-4.469	.000

〈표 3-2〉 청소년, 학부모 집단간 성교육요구도 차이

N=628

내 용	청소년(n=377)		학부모(n=251)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평등〉	3.05	.89	3.16	.77	-1.615	.107
〈인권교육〉	3.14	.86	3.59	.64	-6.923	.000
〈결혼관〉	3.15	.93	3.53	.73	-5.394	.000
〈사회와 성〉-소계 평균	2.87	.67	3.21	.53	-6.604	.000
성폭력문제	3.36	.89	3.77	.58	-6.556	.000
성의 상품화	2.90	1.03	3.12	.99	-2.635	.009
포르노의 허구성	2.52	1.09	2.95	1.02	-4.928	.000
담배,알콜,마약	3.08	1.08	3.50	.91	-5.068	.000
매매춘	2.99	1.01	3.44	.89	-5.628	.000
성희롱	3.19	.95	3.48	.79	-4.001	.000
동성애	2.83	1.08	3.17	.98	-4.198	.000
장애인의 성	2.66	1.09	2.89	.98	-2.693	.007
우생학과 성	2.54	1.05	2.72	.96	-2.193	.029
부부의 성, 가족관	2.92	1.07	3.45	.83	6.632	.000
성과 연령차이	2.60	1.08	2.74	1.96	-.713	.087

〈사랑〉	3.46	.80	3.50	.70	-.606	.544
〈생사관〉-소계 평균	3.11	.70	3.25	.44	-2.864	.004
어떻게 살 것인가	3.29	.89	3.58	.64	-4.467	.000
소중한 생명	3.53	.79	3.71	.67	-2.911	.004
성감별	2.77	1.03	2.10	1.12	7.745	.000
건강한 삶	3.42	.88	3.72	.62	-4.600	.000
〈생식교육〉-소계 평균	3.18	.72	3.30	.61	-2.211	.027
임신	3.31	.85	3.62	.70	-4.828	.000
성교	3.19	.89	3.35	.79	-2.418	.016
불임과 생식기술	2.98	.92	3.10	.84	-1.570	.117
수정	3.11	.91	2.99	.92	1.534	.126
출산	3.31	.87	3.44	.79	-1.952	.050
〈생리교육〉-소계 평균	3.02	.78	3.02	.63	.015	.988
2차성징 남녀의 차	3.09	.93	3.12	.85	-.236	.813
초경과 사춘기	3.17	.88	3.35	.77	-2.594	.010
폐경	2.92	.94	2.87	.92	.628	.530
몽정	2.91	.95	2.74	.87	2.254	.025
사정	2.93	.94	2.79	.90	1.871	.062
월경	3.07	.95	3.23	.86	-2.111	.035
〈처치교육〉-소계 평균	3.04	.73	3.24	.56	-3.741	.000
피임방법	3.02	1.01	3.26	.87	-2.946	.003
월경처리	3.02	.92	3.26	.82	-3.333	.001
콘돔사용법	2.79	1.51	2.86	.95	-.615	.539
자위행위	2.77	1.14	2.71	.97	.654	.513
몸의 청결	3.31	.87	3.52	.73	-3.166	.002
AIDS 예방과 치료	3.28	.91	3.61	.73	-4.844	.000
낙태와 임신중절	3.05	1.02	3.46	.89	-5.083	.000

4. 청소년의 자위행위실태와 학부모의 인지에부

연구대상 청소년의 자위행위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의 15.7%(59명)가 자위행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빈도에서는 "하루에 2회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7.3%(22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달에 1-2회정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5.6%(21명)였으며 "하루에 1회정도"는 16.9%(10명), "하루에 여러번씩"은 10.2%(6명)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6.9%(1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에서 남학생이 91.5%(54명)으로서 여학생 8.5%(5명)보다 훨씬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 = 45.121, p = .000$). 한편, 팽덕영과 김미화(1994)에 의하면 남학생의 70.5%, 여학생의 23.0%에서 자위행위경험을 했고 또한 부산성폭력상담소(1996)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45.8%가 성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 학교에서 제공받은 성교육이나 성충동해소방법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45.0%에서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성적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성접촉 범위로서는 키스(17.6%), 포옹(21.4%), 성관계(14.5%)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성교육의 내용 및 깊이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불법출판물이나 포르노를 본 청소년의 비율이 84.1%였으며 그중 20.7%는 기분이 좋았다고 응답했고 32.5%에서는 자위행위를 했으며, 12.5%는 성행위를 모방했고 심지어 음주·흡연·본드를 흡입한 대상자도 3.8% 보고되었다.

〈표 4〉 청소년의 자위행위실태 및 학부모의 인지도

특 성	구 분	청소년(n=377)
		빈도(%)
자위행위	유	59(15.7)
	무	317(84.3)
성별분포	남	54(91.5)
	여	5(8.5)
자위행위 빈도	하루에 한번정도	10(16.9)
	하루에 두 번정도	22(37.3)
	하루에 여러 차례	6(10.2)
부모 인지 여부	한달에 1-2회 정도	21(35.6)
	예	10(16.9)
	아니오	49(83.1)

5. 학교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제안

학교성교육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성교육의 책임자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임자라고 생각되는 선생님을 한분만 표하게 한 결과 학부모의 39.0%(98명)에서 '사범대학 출신 보건교사'가 책임자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간호대학 출신의 보건교사'(34.7%, 87명), '양호교사'(16.7%,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간호대학출신의 보건교사'(44.0%, 166명)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양호교사'(24.7%, 93명)를, 세 번째는 '사범대학 출신 보건교사'(17.0%, 64명)를 책임자라고 응답하여 학부모와 대조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성교육 주체자로서 가장 적합한 교사가 '간호대학 출신 보건교사'와 '사범대학 출신

의 보건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일 자료(1996)에서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대상자가 81.5%였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가정, 생물, 체육, 도덕 및 사회 교과목 교사로부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양호교사 35.6%, 담임교사 9.8%, 초빙강사 6.1%, 상담실 교사 3.0%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양호교사에 대한 성교육적 역할기대가 비교적 높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성교육전담 보건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보건교과목을 정규 교과과정내에 마련한후, 기존의 양호교사를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담당자로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학교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의견 조사표

내 용	구 분	학부모(n=251)	청소년(n=377)
		실수(%)	실수(%)
성교육 책임자	*양호교사	42(16.7)	93(24.7)
	교련교사	3(1.2)	16(4.2)
	체육교사	1(.4)	12(3.2)
	보건교사	98(39.0)	166(44.0)
	(간호대학출신)		
	보건교사	87(34.7)	64(17.0)
	(사범대학출신)		
공동참여	20(8.0)	26(6.9)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P시내 청소년 377명과 학부모 251명을 대상으로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자위행위 실태를 확인하며 성교육책임자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합한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 차이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직무면의 성역할 인지도를 묻는 12개 문항전체에 대한 평균은 남학생이 2.92점으로서 여학생의 1.85점보다 높았으며($t=15.293, p=.000$), 태도면의 성역할인 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전체에 대한 평균은 남학생이 2.91점으로 여학생 2.13점보다 높게 나타

났고($t=13.148, p=.000$), 능력면의 성역할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전체에 대한 평균은 남학생이 2.93점으로 여학생 1.9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16.417, p=.000$).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 차이는 9개 주개념중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점수에서는 여학생이 3.17점으로 남학생 2.9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74, p=.010$). "생사관"은 남학생이 3.20점으로 여학생 3.02점보다 높았다($t=2.421, p=.016$). 특히 소중한 생명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성별차이도 컸다. "생식교육"에 대한 평균점수는 남학생 3.11점, 여학생 3.25점으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임신, 불임, 생식기술'과 같은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출산, 성교, 수정'과 같은 내용에서도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생리교육"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3.02점과 여학생 3.01점으로 성별로 차이가 없었고 9개의 성교육 주 개념중에서 비교적 요구도가 낮았지만 '2차성징, 남녀의 차, 초경, 월경'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처치교육"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2.99, 여학생 3.07로 성별 차이는 없었지만 '월경처리, 낙태와 임신중절'에 대한 개별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요구를 했고 'AIDS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생리교육과 처치교육'에 대해서는 남녀학생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사회와 성"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남학생 2.80점, 여학생 2.95점으로 9개 주 개념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성의 상품화, 성희롱, 장애인의 성문제, 부부간의 성, 가족관 및 성과 연령차이'에 대한 요구도는 여학생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 남녀 모두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성폭력문제, 담배, 알콜, 마약, 매매, 춘 및 성희롱'항목이었다.

2)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의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 차이

첫째, 청소년과 학부모간의 성역할 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무면의 성역할인지도를 묻는 12개 문항에 대한 총평균은 학부모가 2.93점으로서 청소년의 2.39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206, p=.000$). 태도면의 성역할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학부모가 2.77점으로서 청소년의 2.52점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4.518, p=.000$). 능력영역의 성역할인지도를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은 학부모가 2.79점으로서 청소년의 2.45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5.840, p=.000$) 학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남성우위적 성차별의식이 강했으며 남녀성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의 성교육 요구도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9개 영역중 "인권교육", "결혼관", "사회와 성"의 '성폭력문제, 성의 상품화, 포르노의 허구성, 담배, 알콜, 마약, 매매, 춘, 성희롱, 동성애, 장애인의 성, 우생학과 성, 부부의 성, 가족관' 항목과 "생사관"의 '어떻게 살 것인가, 소중한 삶, 성감별, 건강한 삶' 그리고 '임신, 성교 및 출산'과 같은 "생식교육", '초경과 사춘기'($t=-2.594, p=.010$), '동정'($t=2.524, p=.025$), '월경'($t=-2.111, p=.035$)과 같은 "생리교육", '피임방법'($t=-3.741, p=.000$), '월경처리'($-3.333, p=.001$), '몸의 청결'($t=-3.166, p=.002$), 'AIDS예방과 치료'($t=-4.844, p=.000$), '낙태와 임신중절'($t=-5.083, p=.000$)과 같은 "처치교육" 영역이며 이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학부모가 청소년에 비

해 성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3) 청소년 자위행위 실태와 학부모의 인지여부

전체 대상자의 15.7%(59명)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2회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7.3%(22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자위행위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6.9%(1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에서 남학생이 91.5%(54명)으로서 여학생 8.5%(5명)보다 훨씬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 = 45.121, p = .000$).

4) 학교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

양호교사를 성교육의 책임자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6.7%(42명)였으며 청소년은 24.7%(93명)로 나타나 학부모보다 청소년이 양호교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성교육은 특정 교과목의 성교육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투입시켜야 한다. 성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교과를 통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논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교육을 주도해 나갈 전문적 담당교사와 교과목은 있어야 하며 바로 그 주인공 역할을 양호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양호교사는 일반 및 교련 교사, 종교인, 사회사업가와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하여 학교 성교육과 가정내 성교육이 같은 교육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는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익혀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곽덕영과 김미화(1994). 부모교육론(차세대 인물 양성을 위한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방법론). 서울:형설출판사: 631
- 권이종(1996).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59
- 北尺杻子-기타자와 교코(1997). 편견없는 성교육 I, II. 성폭력 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1996). 개소 1주년 기념자료집-상담통계 및 상담자료분석(95.5-96.4)-:17-27.
- 성폭력피해상담소(1996). 편견없는 성교육(2). -교사용성교육 입문서-
- 신세호외 3인(1987). 한국인의 남성 및 여성 역할관.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자(1996). 성교육-현대사회와 청소년. 서울: 현문사.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편찬: 9-25.
- 이순형(1983). 교교생의 남녀 역할관에 관한 연구. 서울: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 량서원 : 59
- 조원정,김진순,김용순,서문자의(1996). 성교육. 서울 : 현문사
- 주간조선(1998). 10대의 성(Aug. 27 '98): 46-47.
- 최혜영(1998). 중학생의 건전한 성지식 및 태도형성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연구. 고신대보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세정,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1997). *성의 과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147-8
- 한국교육개발원편(1977). *한국인의 남녀역할관*.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부모교육학회(1998). *성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한명희(1983). *국민학교 어린이의 성역할 의식과 교육의 과제*. 동국대논문집 22편, 서울, 동국대학교
- Alvarez, M. et.al.(1990). Sex Inform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ex. *Rev. Clin. Pediatr.*, 61(2): 102-108
- Adams, G.R., Gullotta.T.(1983). *Adolescent Life Experiences*. Brooks Cole Pub. Co., Monterey California: 211-229
- Hajcak, F., Garwood, P.(1988). Quick-fix Sex: pseudosexuality in adolescents. *Adolescence*, 23(92):755-60
- Roberts, S.S., Allen, D.F., Jekel, J.F.(1984). Teenager pregnancy in the Bahamas : trends and characteristics. *Yale. J. Biol. med.* May-Jun.: 57(3): 273-81.
- Shen, J.T.(1982). Adolescent Sexual Behavior. *Postgrad. Med.* 71(4): 46-8,54-5.

<Abstract>

Key Concept :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The Study of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and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by the Korean Juni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Kim, Young Hae, PhD, R.N.*

The study was attempted to survey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and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The period was May 1st through June 15th, 1998 and the subjects were 377 junior students and 251 parents in Pusan. This study was based on questionnaire which focused on the Han and Lee's inquiry.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was executed by using SPSS/PC+.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The average point as to the 12 items of recognition of sexual roles regarding the occupational functions by the boys was 2.92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irls(1.85). The average point as to the 14 items of recognition of sexual roles regarding the attitudes by the boys was 2.91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irls(2.13). The average point as to the 14 items of recognition of sexual roles regarding the abilities by the boys was 2.93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irls(1.96). The point as to the item of androgyny among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by the girls was 3.17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the boys(2.93).
- (2) The parents showed the higher recognition toward androcentrism than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showed the higher demand of the overall sexual

*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than the students.

- (3) 15.7% of the students was engaged in the masturbation. The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ir parents had known the masturbation by their children were 16.9%. The 59 masturbators consisted of the boys(91.5%) and the girls(8.5%), and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 (4) The opinions about the well-qualified teacher of sexual education by the subjects were studied as under: 16.7% of the parents supported the nurse-teacher, meanwhile 24.7% of the students supported the nurse-teacher.